

복지프리즘

10 호남신문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모두가 발달장애인”
‘동페라 예술단’
美 무대에 선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페라 (동화+오페아) 예술단’이 오는 29일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교육원에서 공연을 갖는다. 26일 사회적협동조합 홀더맘센터(인) 아발달센터에 따르면 ‘동페라 예술단’이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박 6일간 미국 LA를 방문해 교관들을 대상으로 아이와 노폐가 함께하는 동페라 굿도끼 은도끼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미 대한서남부장 애인체육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체류비는 체육회가, 항공료와 경비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과 광동제약이 각각 후원한다. 송양빈 홀더맘센터 이사는 “단원 모두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페라 예술단은 수원시장장애인복지관과 홀더맘센터가 주도해 지난 2016년 창단했다”며 “후부터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별거벗은 임금님’, 이번에 미국 무대에 올리는 ‘굿도끼 은도끼’를 공연해왔다”고 전했다.

7월 동네병원 입원·응급환자 부담 ‘뚝’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응급·중환자실 125개 의료행위·치료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던 난임 치료시술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범위도 늘어난다.

◇ ‘제각각’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료 ‘3분의 1’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764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병상(전체 병상 18만1932개 중 9.7%)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으나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100% 본인부담인 까닭에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은 기본입원료(3만2000원)의 20%와 평균 병실차액 6만4000원을 더해 평균 7만원이다. 간호 3등급 종합병원 입원료(5만원)보다 높은 셈이어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2·3인실 입원료 1/3수준...응급·중환자 건보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건보 적용 횟수 확대

따라 입원료 부담(간호 7등급 기준)은 2인실이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7520원으로, 3인실이 4만7000원(최고 20만원)에서 1만7690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이로써 환자 38만여명이 입원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 응급·중환자실에도 건보... 안전·인력확충 방안 검토

응급·중환자실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류,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가 포함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6만4000원 안팎에서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평균 3만1000원 검사비는 1만원으로 낮아진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급성 심장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22000원에서 42000원으로 줄어든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의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돼 50여원 규모의 비급여가 해소되고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이 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 등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별도로 검토된다.

◇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건보 적용 횟수는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2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도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여성이 만 44세 이하일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

담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5월 15일~6월 4일) 및 전자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집진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시

영남대,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 나서



영남대 로봇기계공학과 최정수(오른쪽) 교수가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를 점검하고 있다.

영남대학교가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 기술 개발에 나섰다.

26일 영남대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

인용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WalkON Suit)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주)켄켄로보틱스가

주관기관으로 영남대를 포함해 카이스트(KAIST), 세브란스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국립교통재활병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문대학교, (주)에스텍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영남대 로봇기계공학과 최정수(32) 교수는 웨어러블 로봇의 핵심 기술인 로봇의 움직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카이스트와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실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로봇에 탑승한 채로 직선·곡선·힘저항, 경사로 및 계단 오르내리기, 문 통과하기 등의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해야 한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정교한 움직임의 구현을 위한 각종 동작 생성 알고리즘 및 정밀 제어 기술을 개발해 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

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연구팀이 보험 적용이나 구매 보조금 등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까지 관심을 두는 이유다.

웨어러블 로봇 산업 분야의 표준화된 검증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JIS규격으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바 있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은 FDA 또는 국내 의료기기 인증의 절차를 따를 수 있지만 국내에 웨어러블 로봇만을 위한 특화된 표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영남대는 이 부분에서 한발 앞서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전용 성능 평가장을 대 학 내에 구축하고 의료재활용을 비롯해 산업용, 기타 일상생활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과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부터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영남대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는 내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2회 사이배슬론(Cyathlon) 대회에 참가

할 예정이다.

사이배슬론은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경기를 의미하는 리턴어 애슬론의 합성어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로봇-장애인 융합 국제 올림픽이다.

워크온슈트는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 출전한다. 최 교수는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제1회 사이배슬론에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팀의 멤버로 참가했으며 최종 3위에 올랐다.

최정수 교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이 로봇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다”며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의 3년 내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실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마비 수준이 높은 장애인까지 보조 가능한 실용적인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